

제345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2024. 2. 27(화) 14:00

「경상북도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경 상 북 도 의 회

(임 병 하 의 원)

안녕하십니까?

영주 출신 임병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 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 잘 아시다시피, 도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있어 노후 옥내수도시설은 녹물과 수질저하의 주요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 현행 조례에 따라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는 ‘갱생’¹⁾과 ‘교체’²⁾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현행 방식으로

1) 수도관의 관 내부의 녹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특수기능을 회복하는 방식

2)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이 있는 노후된 급수관과 저수조 등을 새로운 내식성 급수관 등으로 바꾸는 방식

사업추진이 어려운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정비 방식과 지원 우선순위에 대한 조정 필요성이 제기 되었습니다.

- 이에 본 의원은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에 따른 지원을 방식을 확대하고, 지원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먼저, 안 제2조에서 옥내 수도시설 정비방안으로 현행 갱생과 교체방식 뿐 아니라 교체가 어려운 현장에 수도관 성능향상장치를 활용한 방안을 추가하고, 관련 용어도 정비하였습니다.
- 안 제7조에서는 정비사업 지원 동일 순위일 경우, 기초 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 도내 20년 이상 주택의 수가 33만8,704세대³⁾에 달하고, 옥내 수도시설 정비수요는 나날이 늘어날 것입니다.
- 조례개정을 계기로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방식을 다양화하고, 현실을 반영한 지원 우선순위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한다면, 도민들의 녹물 발생 등 수돗물에 대한 불신과 불편이 개선되고, 더 나아가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 조례 발의에 앞서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상북도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2. 27.

임병하 의원

3) 국가통계포털 2021.12월말 기준, 20~30년 미만 89,599세대, 30년 이상 249,105세대